오륙도 글밭

오륙도를 보지 않고 세상 절경을 논하지 말지니

장 순 복
(부산시 관광협회 부회장·대륙항공여행사 대표)

삽화=백승영 화백
(전 부산국제아트타운 작가회 회장·프로비전 한송 대표)

동래부사는 1546년 초대부사 이운암이 부임한 이래 1895년 정인학을 마지막으로 349년 동안 모두 총 255명이 임명되었다. 동래부사는 목민관의 기본 책무인 수령질사(소송에 대한 판결 조직과 법령을 받들어 행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하는 등의 일곱 가지 사항) 외에도 군사시설 및 군정관리, 왜관 통제, 왜사접대 같은 업무를 부여 받았다. 국방과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국왕의 신임이 두텁고 두뇌가 명석한 인물들이 많았다.

붕당 정치에 얽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중앙정계를 떠나 외직의 수장을 맡아 선정을 베풀었던 동래부사들은 수많은 시와 문집을 남겼다. 하지만 255명의 동래부사 가운데 오륙도를 주제로 글을 남긴 부사는 한 명도 없었다. '오륙도' 글귀라도 남긴 부사는 1867년 5월부터 1874년 1월까지 동래부사를 지냈던 정현덕이다. 본관은 동래, 자는 백순(伯純), 호는 우전(雨田)이다. 1810년에 태어나 일흔 네 살까지 살았다. 철종 1년(1850년) 과거에 급제할 때의 나이는 마흔, 쉰넷 되던 1864년(고종 1년) 사은정사(謝恩正使) 서형순(徐衡淳)을 따라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정현덕은 1869년 12월 첫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가사 형식의 봉래별곡(蓬萊別曲)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그의 나이 쉰아홉이었다. 범어사, 동래온천, 황령산, 영가대, 증산, 구봉봉수대 등을 돌아보고 다대포를 떠나 영도섬을 돌아본 뒤 이렇게 읊었다.

육지를 다 본 후 도중(島中)으로 향하리라.
절영도 들어가니 수로십리 적실하다.
산하는 목장 되어 삼천 준마 용동(聳動)이라.
산상은 봉산(封山)되어 왜시(倭市) 입금(入禁) 다사하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 수삼 어촌뿐이로다.
벌목(伐木) 계경(溪徑) 찾아가서 태종대 다다르니,
해상의 높은 바위 천장만장 뿐이로다.
관청대(官廳臺)가 그 앞이요 동우섬이 앞임이라.
오륙도는 동편이요 우암포는 북편이라.
창랑가(滄浪歌) 한 곡조에 선경이 적실하다.
선연(仙緣)이 업돗던지 홍진(紅塵)에 일이 많다.
진시황 한무제도 이곳을 어이 보리
니내몸 무삼 연분 선경을 편답하고,
불사약 있다 말이 방사(方士)의 빈말이라.
오도자(吳道子)의 복증산천 긔 누라서 알아내리

진시황의 방사 서불이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떠났던 곳은 삼신산의 하나인 봉래산이었다. 정현덕은 신선이 되어 봉래산을 찾아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했다. 정현덕은 깎아지른 듯 수직으로 떨어지는 태종대 절벽 위에서 오륙도를 바라보며 진시황과 한무제도 이런 선경을 볼 수 없다 했다.

오륙도는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풍광이 다르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아치섬(국립한국해양대학교),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국립해양박물관, 백운포, 오륙도 스카이워크, 오륙도 SK VIEW 아파트,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오륙도 풍경은 너무도 아름답다. 해질 무렵 동백섬 운대산에 오르면 오륙도 사이 사이로 노을이 드리운다. 오색 빛의 스펙트럼은 한 폭의 그림이다. 신선대에서 해를 등지고 오륙도 쪽을 바라보는 일몰도 빼놓을 수 없는 풍광이다. 오륙도 일출은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일어나는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배를 타고 나가 방파제 등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오륙도 일출은 전국 사진작가들이 꿈꾸는 빛의 판타지다. 수도권 여행사 대표들과 언론인들을 인솔하여 오륙도 등대섬에 오르던 날, 오륙도 SK VIEW 아파트를 휘감으며 오르내리는 구름이 그려내는 한 폭의 수묵화는 천하절경이었다.

삶은 불가사의한 바다이고 시는 그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줍는 단서들이라 했다. 오륙도에서 푸른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시인이 된다.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질 무렵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만났다. 티끌세상을 멀리한 채 자연을 벗 삼아 술과 시와 거문고로 살아가는 현인을 떠올리게 만든다. 어디서 오셨냐고 묻자 대전이란다. 수많은 경승지 가운데 왜 오륙도 등대섬이냐고 묻자 죽기 전에 꼭 그리고 싶은 100곳을 정했는데 그 중 한 곳이란다. 이 겨레가 처음 태어났다는 북두칠성이 머리 위에 떠 있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 마을은 갈 수 없지만 두물머리, 연주암, 간월암, 사성암, 성산일출봉, 보령 장고도마을 등 그리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화백과 함께 온 여인에게 오륙도 등대섬을 연인이 함께 오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전해진다고 하자 빙그레 웃는다.

손에 닿을 듯 바다를 휘감은 섬들의 행렬이 펼쳐지는 오륙도 운무도 세계적인 풍경이다. 오륙도 등대섬에 올랐던 BBS불교TV 작가는 부산을 다섯 번 왔는데 오륙도 등대섬은 처음이라며 조용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의 주인공이 되었다며 행복해했다.

추억이 시작되는 곳, 오륙도 등대섬은 평생 한번은 가보아야 할 부산의 로망이다.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1월 16~31일

삽화=조을홍

2018 버킷 리스트를 적으며

처음이란 말은 참 좋다.

낯설음이 주는 긴장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 날, 첫 만남, 첫 소망, 첫 다짐 등.

무술년 한 해가 열렸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지만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설레는 것은 새해의 첫날이기 때문이리라. 은은하게 번져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솟아오를 태양을 꿈꾼다. 그리고 서서히 밝은 해가 모습을 드러내면 환호성과 함께 한 해의 소망을 빌어 본다. 새해의 찬란하고 희망찬 기운을 받으며 새롭게 자신에게 다짐하는 계기인 것이다.

소망을 꿈꾸며 2018년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꾸준한 인내심과 큰 결단력이 필요한 무거운 계획보다 일상에서 미뤄지는 소소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부담스럽지 않아야 실천하기 쉽다. 쉬워서 미루다가 그냥 지나쳐 뒤늦게 후회했던 작은 일상들을 모아본다.

건강을 챙기자.
지난 해 보다 책을 5권 더 읽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남을 인정해주자.
먼저 다가서자.

수많은 계획이 날개를 편다. 새로운 소망도 있지만 못다 이룬 꿈도 버릴 수 없겠다. 조금 거창하여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꿈을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충분한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조을홍
(명예기자·남구문인협회부회장)

산따라 물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한울림산악회	2/11(일)	진안 구봉산	010-9975-8688
	약천산악회	2/21(수)	남해 노자산	010-4655-4370
	신요산악회	2/4(일)	거창 덕유산	010-3578-6482
용호동	금강산악회	2/4(일)	통영 도덕산 시루봉	010-3865-9051
	용신산악회	2/11(일)	충북 괴산(산막이옛길)	010-4657-7051
	청산산악회	2/4(일)	대둔산	010-8008-2087
	환경산악회	2/4(일)	소백산	010-3575-3448
	용호산악회	2/25(일)	고성 구절산	010-6266-8525
	여명산악회	2/4(일)	남해 금산	010-3554-4392
	산오름회산악회	2/2~3(금~토)	제주 한라산	010-7223-2277
	청심산악회	2/25(일)	거제 망산	010-2736-7553
용당동	문화산악회	2/25(일)	울진 백암산	010-3856-7850
	용마산악회	2/11(일)	여수 향일암	010-2692-1170
감만동	녹색산악회	2/25(일)	통영 미륵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2/18(일)	자울산행	010-8287-1192
우암동	우일산악회	2/4(일)	영동 민주지산	010-3595-5848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2/11(일)	대구 팔공산 갓바위	010-2902-8322
	원뿌리산악회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2/4(일)	전남 가우도섬	010-4035-3432
	문사산악회	2/11(일)	진안 운장산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독자의 소리

할머니와 실버카

매서운 날씨 탓인지 아침 출근길이 한산하게 느껴졌다. 지하철 입구, 팔순은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계단입구에서 주춤거리고 계셨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라고 여쭈었더니 자신을 계단 아래까지만 내려가게 도와달라고 하신다. 어르신 양손을 붙들고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오면서 입으로는 "어르신 조심하세요. 천천히"라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마음 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벽면에 가이드용 손잡이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데 왜 잡지 않으실까…'.

마치 내 생각을 꿰뚫기나 한 것처럼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신다. "손잡이나 너무 차가워 만질 수가 없네."

지하철 바닥까지 펼쳐진 보행도움용 손잡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뽐내며 차갑게 이어져 있었다.

아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보행약자들을 위해 설치된 손잡이가 때로는 더 추운 겨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종종거리며 무심한 한마디를 보탠다. "할매요, 젊은 사람도 다니기 추운 날씨에 왜 댕기능교?"

마지막 계단에 이르렀을 때, "아가씨, 고마워요"라며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굽은 허리로 인사를 건네신다. 계단 아래에는 어르신 실버카(보행보조기)가 이미 마중 나와 있었다. 누군가 어른신을 위해 실버카를 먼저 옮겼나 보다.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괜스레 노모에게 전화하여 날이 추우니 꼼짝 말고 집에만 계시라고 폭풍 잔소리를 했다. 이렇게 또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다.

조영주(남구청 주민지원과)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8. 1.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다원메디컴	문현동	의료장비 영업원	1명	18. 1. 22~채용시까지	연봉 2200만원	051-633-1431
유진치과병원	문현동	치과위생사	1명	18. 1. 22~채용시까지	월급 160만원	051-633-2875
연경	대연동	홀 써빙	1명	18. 1. 22~채용시까지	월급 157만원	010-6588-7402
㈜장천/대우그리1차	대연동	미화	1명	18. 1. 22~채용시까지	월급 129만원	051-294-8601
㈜경양엔지니어링	감만동	무역영업원	1명	18. 1. 22~채용시까지	연봉 2100만원	051-418-6628
동국제강(주)(부산공장)	감만동	간호사	1명	18. 1. 19~18. 1. 26까지	연봉 2810만원	051-640-5126
위니즈(본사)	용당동	웹디자이너	1명	18. 1. 19~채용시까지	월급 160만원	051-629-7932
대진소방	문현동	납품영업사원	1명	18. 1. 19~18. 2. 2	월급 200만원	051-644-1119
㈜하버맥스	용당동	펌웨어, PCB 회로설계 경력자	1명	18. 1. 19~채용시까지	연봉 3,000만원	051-626-9451
바다별어린이집	용당동	보육교사	2명	18. 1. 19~18. 1. 31	월급 170만원	051-627-2014
성원식육	용호동	식품판매	1명	18. 1. 19~18. 1. 31	월급 180만원	051-621-2927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한글교실 수강생 16명 체험수기 공모 수상

남구가 운영하는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주민들이 제12회 문해학습자 체험수기 공모에서 상을 휩쓸었다.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후원한 이번 공모에서 남구는 우수상 2명, 늘배움상 14명 등 16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우암동 양달마을 행복센터에서 한글을 배운 장복연(71) 씨와 우암동 한일경로당 한봉순(84) 씨는 찾아가는 남구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체험수기로 작성해 중학 과정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남구는 관내 행복학습센터·경로당 등에서 '찾아가는 남구 한글교실'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한글강사로 양성해 마을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펼치고 있다. ☎607-4515

'찾아가는 남구 한글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 : 2018. 1. 22.(월)~1. 31.(수)
○**운영** : 2018. 2~12월
○**대상** : 한글을 배우고 싶은 주민 5인 이상
※ 마을 대표, 이웃 주민 등 누구나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교육장소** : 행복학습센터, 경로당 등
※ 교육장소는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 신청서와 수강생 명부 작성 후 동주민센터로 제출
○**문의** : 남구 평생교육과(☎607-4515)

40년 전통 남부야학 학생 모집

4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부산 남부중고등학교(남부야학)에서 성인 및 정규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한글 기초) 및 중등·고등(검정고시 대비)반을 모집한다.

검정고시 합격 보장, 전현직 정규교사로 구성된 최고 강사진, 전 남부경찰서 부설 교육기관, 40년 전통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위치 : 문현3동주민센터 인근. 문의 ☎010-4543-4746

■ 제12회 문해학습자 체험수기 최우수상

장복연 파이팅!

장복연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 잘되지 않는 편지지만 한번 써보자. 편지란 것이 잠 말이 잘 나와야 하는데 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이 싫다.

나이는 자꾸 먹는데 마음은 항상 산으로 들판으로 마구 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구치는구나. 장복연 정신 차리자. 산으로 가면 온산이 푸른것을 보면서 나는 기분이 붕뜨는 것 같다. 내 나이 30년만 젊으면 좋겠다.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이 좀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하는데 마음이 잘될까? 지난 기억이 자꾸만 흐려지지만 장복연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처럼 늦깎이로 자원봉사자 선생님으로부터 활동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야겠다. 첫째로 공부 열심히 하기,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박지영 선생님 말 잘 듣기,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복연 파이팅해요. 사랑합니다.

장복연(71·양달 마을 어르신 한글교실)

아들과 엄마

세월이 벌써 6년이 되었네. 아들과 납골당에 다녀오는 길에 기장 시장에 갔다.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이것 살까? 저것 살까? 하면서 시장을 보았다. 나는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아들 곁에 있는 것이 마침 아들이 엄마 같고 엄마가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옛날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와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의 음식을 며느리가 꼭 찍어 내 입에 넣어줄 때가 너무 행복했다. 지금은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고 아들과 같이 시장을 보니 너무 쓸쓸하다. 지금은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다 해주고 갔다. 나는 완전히 아이가 된 것 같아 너무 슬프다. 그 때 그 시절이 한번 또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올까? 기다리면서….

한봉순 (84·남구청 한글교실)

내민 손 잡아준 어르신들이 더 감사

용호3동 통장들의 봉사단체인 '통사랑해'는 지난 2013년 1월 그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사정을 잘 아는 통장들이 모여 만든 순수 봉사모임이다.

모임 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통장들이 선정한 가정을 방문해 전등, 수도 등 가정 시설물을 수리해 준다. 특히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주고 있다. 연세가 들어 말하기도 힘들고, 노후 대책도 미흡한 지금의 어르신들은 70~80년대 우리경제의 초석을 놓은 분들이다.

기초 연금이나 국민연금 만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기도 버겁고, 지병이라도 있으면 삶 자체가 고역인 분들이 많다. 집을 방문하면 간혹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 그 만큼 세상과 등지고 사셨기 때문이다. 의아해 하는 분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드리려 왔다고 하면 그제야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한다.

침침한 집안을 LED전등으로 바꾸어 밝게 해주고, 고장 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나면 비로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커피나 주스 등으로 마음을 전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언제 어떤 이유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병이 찾아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 준다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통사랑해의 이런 작은 봉사는 이웃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킬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일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들 때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의 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일 것이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는 이들 통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향기처럼 번지기를 소원해 본다.

김동섭
(시인·전 용호3동 통장협의회장)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